



의안번호	제 2010 - 8호
의 결 연 월 일	2010. 5. 24. (제25차 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1팀 회의 .....	1
1. 제28차 회의 .....	1
가. 일시·장소 .....	1
나. 참석자 .....	1
다. 주요 안건 .....	1
라. 회의 요지 .....	1
2. 제29차 회의 .....	2
가. 일시·장소 .....	3
나. 참석자 .....	3
다. 주요 안건 .....	3
라. 회의 요지 .....	3
3. 제30차 회의 .....	4
가. 일시·장소 .....	4
나. 참석자 .....	5
다. 주요 안건 .....	5
라. 회의 요지 .....	5
II. 2팀 회의 .....	8
1. 제20차 회의 .....	8
가. 일시·장소 .....	8
나. 참석자 .....	8
다. 주요 안건 .....	8
라. 회의 요지 .....	8
2. 제21차 회의 .....	9

---

가. 일시·장소 .....	9
나. 참석자 .....	9
다. 주요 안건 .....	9
라. 회의 요지 .....	10
 III. 제24차 전체회의 .....	 12
1. 일시·장소 .....	12
2. 참석자 .....	12
3. 주요 안건 .....	12
4. 발표내용 .....	12
5. 회의 요지 .....	12
가.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초안 검토 .....	13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논의 .....	15
다. 기타 .....	16
6. 서면 검토의견 .....	16
 IV. 향후 일정 .....	 17
 별첨   김현석, “보건(식품)범죄 양형기준 검토”	
김현석,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검토”	
윤정근, “절도범죄 양형기준 초안”	
김한균, “약취·유인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위한 검토사항”	
이주형, “절도범죄 유형 양형기준(안) 검토”	
홍동기, “전문위원 자료실 운영의 건”	
서봉규, “법률 개정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검토의견”	
김현석,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의 수정방안 검토”	
김현석,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관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수	

---

정방안 검토”

이주형,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에 대한 의견”

서봉규, “제2차 양형기준 시안에 관한 검토의견”

김한균, “법률개정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  
견”

이상원,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

# I. 1팀 회의

## 1. 제28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4. 9.(금) 19:00 ~ 21: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

-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이상원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다. 주요 안건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 라. 회의 요지

#### (1) 식품·보건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도된 사건, 법정형이 높고 사건발생빈도(기소건수)가 많은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유해성, 피해, 전과 등이 중요한 양형인자라는 의견이 제시됨
- 권고형량범위 설정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면, 기존 양형실무의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2) 공문서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사건발생 빈도수가 많은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사건발생빈도가 적어서 양형통계가 적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

- 공문서관련 범죄 전부를 대상범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 공문서범죄가 사기범죄와 결합된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현행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횡령·배임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취급하고 있음을 참고)

- 권고형량범위 설정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공문서범죄는 전통적인 범죄로서 형량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특별히 규범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기존 양형실무의 선고형 분포에 관한 통계분석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위조공문서행사와 변조공문서행사 중 어느 범죄의 죄질이 보다 중한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2. 제29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4. 15.(목) 08:30 ~ 09:3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

-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다. 주요 안건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 라. 회의 요지

##### (1) 식품·보건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기망적 요소(보건안전시스템 침해)와 물량적 요소(취득 이익) 중 어느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 또는 이익 귀속 정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형량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1기 양형기준에서는 공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보이는데, 특히 식품·보건범죄에서는 범행 가담 정도 및 이익의 귀속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요소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기업형 범죄에서 수괴급인 자를 가중요소로 할 것인지(그 경우 기본영역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음), 종업원인 자를 감경요소로 할 것인지(그 경우 기본영역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무면허 의료행위 중 대체의학, 자연치료요법 등 현행법상 유무죄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

- 대형유통업자는 몰라도 영세 소매업자 또는 식당주를 양형기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며, 처벌을 엄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또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국민적 관심도 높으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모두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6조 제1항만 대상으로 삼되, 제6조 제2항 중 유명대형음식점의 경우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대상범죄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 범죄 등 중죄 위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개별 법률에서 법정형이 높은 범죄(상한 5~7년)를 대상범죄로 삼아서 유형을 구분하자는 의견

## **(2) 공문서범죄**

- 양형기준의 설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외국의 입법례 또는 양형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 **3. 제30차 회의**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5. 4.(화) 19:00 ~ 21:00

○ 장소 : 대법원 406호 회의실

#### 나. 참석자

○ 김용철, 김현석, 서봉규, 이상원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다. 주요 안건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라. 회의 요지

##### (1)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수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급격하게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을 바꾼다든가 모든 영역의 형량범위를 비례적으로 늘리는 것(shifting)은 적절하지 않으며, 극히 예외적이거나 드문 경우를 양형기준에 모두 포섭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에 대한 임의적 감경화는 형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단지 자발적으로 음주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감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

–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미국 양형기준은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영국 양형기준은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이 임의적이고, 프랑스에서는 주취상태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형법 규정이 있는 등

외국의 예로 볼 때, 심신미약 감경의 임의화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인 음주 또는 약물복용으로 인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일반 가중요소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

- 심신장애에는 심신상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심신상실상태에서의 범행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의견

- 청소년 대상 유사성교행위는 현행 양형기준에서 양형기준의 공백 상태가 아니라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2유형에 포섭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음

- 외국의 입법례 또는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고, 구체적 수정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들이 각자 검토해서 계속 논의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 **(2) 식품·보건범죄**

○ 유형구분,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유형구분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유형별 대상범죄의 구성요건, 법조문, 법정형을 정리한 표가 필요하다는 의견

- 양형기준 초안 중 ‘가. 허위표시등 기망행위’ 부분에서만 판매가격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허위표시등 기망행위는 물량을 기준으로,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은 유해성의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유형별 형량범위에 있어서 감경영역의 상한과 가중영역의 하한이 일치하는 등의 중첩범위에 관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개별 범죄 또는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고, 형량범위에 적절한 범위를 주는 것이 타당하며, 형량이 높아질수록 중첩범위는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경험적 양형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형량범위 설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식품·보건범죄의 다양한 범죄에 대한 양형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규범적인 조정을 한 형량범위를 제시한 것이라는 의견

### **(3) 공문서범죄**

○ 유형구분 및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 초안 중 ‘공문서위조·변조 등의 경우’에서, 1유형은 특별감경인자로 처리하고, 2, 3유형만 남겨두자는 의견과 1유형과 2유형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하자는 의견과 일반양형인자로 취급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 양형인자 중 ‘국외 추방이 예상되는 경우’를 감경인자로 취급하자는 의견과 제외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 ‘공문서등 부정행사’에서 제1유형의 ‘기왕에 일어난’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제2유형의 ‘장래에’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이득액’을 ‘범죄로 인한 수익액’으로 바꾸

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이득액을 양형인자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 II. 2팀 회의

### 1. 제20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4. 23.(목) 18:30 ~ 20:0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

- 김한균, 윤정근, 이주형 전문위원

#### 다. 주요 안건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절도,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 라. 회의 요지

##### (1) 절도범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절도사건의 통계상 미수범죄의 비율이 낮지 않으므로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1기 양형기준에서도 살인범죄 이외에는 미수범을 제외하였고, 미수범은 행위 태양 및 형량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추후에 미수범에 대한 종합적인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짐

## **(2) 약취·유인범죄**

- 형량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형법 개정으로 2010. 10. 16.부터 유기징역 상한이 상향 조정되므로 약취·유인 양형기준 설정 시에 이 점을 감안하여 형량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짐

## **(3) 통계분석 활용 및 검토 방안**

- 통계분석자료의 활용 및 검토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추가 양형자료 조사결과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전문위원들이 함께 분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분석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2. 제21차 회의**

### **가. 일시·장소**

- 일시 : 2010. 5. 7.(금) 16:45 ~ 17:30
- 장소 : 대법원 235호 회의실

### **나. 참석자**

- 김한균, 윤정근, 이주형 전문위원

### **다. 주요 안건**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절도,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안 검토

## 라. 회의 요지

### (1) 각 전문위원 논의자료 발표 및 토의

#### ○ 윤정근 전문위원 논의자료 발표

- 형법상 절도죄 및 특가법상 절도죄를 위주로 하되, 임산물절도 및 문화재절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작성
- 재물의 성질 및 범죄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
- 통계분석자료와 양형인자 등은 추가로 보완할 예정
- 이에 대하여, 일반강도와 특수강도를 나누어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강도죄와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팀 논의가 필요하고, 양형인자에 있어서도 흉기휴대절도를 특별양형인자로, 2인 이상 합동절도를 일반양형인자로 하는 부분 등 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주형) 등이 제시됨

#### ○ 이주형 전문위원 논의자료 발표

- 특가법위반(절도)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수범에 대한 분류 후 통계분석을 할 필요성 있음
- 특가법위반의 경우에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을 구분하여 양형자료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절도죄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절도 등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30퍼센트 정도에 이르는 등으로 미수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미수범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 비교법적으로 절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에 의한 기준제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대하여, 미수범 전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이후에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윤정근) 등이 제시됨

○ 김한균 전문위원 논의자료 발표

- 약취·유인죄 관련 법률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기본유형으로 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일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형태

- 약취·유인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범죄객체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그 이외인 경우, 피인취된 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범죄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 참작할 사유, 보통동기, 비난동기로 구분가능하며 절충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기본범죄로 하고, 인취행위의 목적에 따라 가중, 감경하는 방안도 가능

- 특가법상으로는 상해, 살인(치상, 치사 포함)에 대하여 가중하는 형태임

- 양형인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사망의 경우 등에 있어 최근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 상한이 30년, 가중하는 경우 50년으로 상향되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2) 기타 논의 사항**

○ 형법상의 법정형 상향과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1기 양형기준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어떻게 양형기준에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 제1기에서 마련한 살인죄 양형기준의 경우 특히 미수범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

○ 양형통계분석자료의 조속한 제공과 양형통계분석 방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Ⅲ. 제24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 2010. 5. 7.(금) 19:30 ~ 22: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서봉규, 윤정근, 이상원, 이주형, 조은경, 최석윤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식품·보건, 공문서, 절도,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4. 발표 내용

발표자	주제
김현석	● 보건(식품)범죄 양형기준 검토
김현석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검토
윤정근	● 절도범죄 양형기준초안
김한균	● 약취·유인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위한 검토사항
서봉규	●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의견
홍동기	● 전문위원 자료실 운영의 건

#### 5. 회의 요지



### 가.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대상범죄별 주무 전문위원의 양형기준 초안 발표와 각 팀별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됨
- 전문위원들이 위 양형기준 초안을 검토한 후 2010. 5. 12.까지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수석전문위원이 이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의견이 모아짐

#### (1) 식품·보건범죄

-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식품·보건범죄는 개별 단행법 및 조항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분된 유형에 속해 있지만 대상범죄에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그에 포섭되지 않은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성격이 가장 비슷한 유형의 형량범위를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

#### (2) 공문서범죄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이득액 등 양형인자표의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 (3) 절도범죄

- 대상범죄, 유형분류 및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수절도의 경우, 331조 제1항과 제2항, 제2항 중 흉기휴대절도와 합동절도를 구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절도범죄의 통계상 미수범, 교사·방조범의 비중이 낮지 않고, 사용절도도 빈발하고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미수범은 범죄 및 형량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여 양형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하면 된다는 의견
- 미수범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양형기준이 필요하고, 기수범 사이에 미수범이 끼게 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
- 절도는 재산범죄이므로 특경법상 횡령·배임의 경우와 같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구분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
- 피해금액은 우연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금융기관 절도, 금은방 절도 등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수한 상황 또는 영역에서는 금액을 양형인자 또는 형량범위 설정에 반영할 수는 있다는 의견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재물이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금액을 특별인자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양형기준표 바로 아래에 서술식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4) 약취·유인범죄

- 대상범죄 및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결혼 목적은 참작할 만한 동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
  - 형법 제288조 제1항과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은 재물을 취득하는 차원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목적과 활용수단이 다른 것이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데에 반론이 없음
  - 약취·유인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시 인질강도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인질강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의 가중처벌규정이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이라면, 대상이 성년자인 경우만을 추가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

####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논의

- 유형별 형량범위의 수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법정형의 하한을 기본영역의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작량감경할 사유를 봉쇄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러한 접근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
- 심신장애 및 농아자에 대한 임의적 감경조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조항은 형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고, 법 규정은 임의적 감경으로 되어 있음에도 더 나아가 감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 이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오히려 가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

○ 형법 총칙의 유기징역형 상한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현행 양형기준상 살인죄(특히 살인미수죄) 및 성범죄의 형량이 낮은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으므로 유기징역형 상한의 상향 조정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

- 중대한 범죄 간의 형량 비교 및 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

#### 다. 기타

○ 가칭 전문위원 자료실 운영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데이터 자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자료실 내에서 열람,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통계자료의 외부 유출시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받고 전문위원이 데이터를 제공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장소,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전문위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일단 운영지원단의 자료실 운영방안에 따라 시행을 해 본 후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운영지원단에 알리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6. 서면 검토의견

- 제24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이후 2010. 5. 14.까지 다음과 같이 별첨 의견서의 형태로 전문위원들의 서면 검토의견이 제출됨
  - 김현석,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의 수정방안 검토”
  - 김현석,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관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수정방안 검토”
  - 이주형,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료에 대한 의견”
  - 서봉규, “제2차 양형기준 시안에 관한 검토의견”
  - 김한균, “법률개정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 이상원, “양형기준안 검토의견”

#### **IV.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5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5차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